

## 신학적 변혁 새 시대, 새 교회

새로운 시대적 변화는 그 시대에 걸맞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사람은 자신의 안전시대부터 나와 이미 굳은 사고방식, 곧 고정관념을 수정하게 된다.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교회가 개척되지 않은 것은 글로벌화와 정보화로 치닫는 시대적 변화만으로 답할 수 없다. 문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의식 속에 뿌리를 틀고 있는 “교회 = 건물”이란 공식에 있다. 한동안 통용되었던 이 공식은 성경적인가? 아니면 교회의 본질과 형태는 무엇인가? 먼저 교회 유형을 논의하고 이런 문제가 처음 대두되었던 사도행전 10-11장을 살핍으로 교회에 대한 베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다루면서 현금에 필요한 교회 형태를 제시하려 한다.

글 김의원 백석대 부총장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이사장

## 교회의 유형(참고, 스나이더 84ff)

(1) 건물 교회: 이런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간주한다. 그 건물이 교회의 전체 프로그램과 생활양식을 완전히 결정짓고 만다. 이런 종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2) 유령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이 없음을 자랑으로 여긴다. 어떤 종류의 구조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교회는 상호책임성이나 조직적 상호관련성을 갖는 몸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 조직이 결여되어 있어 안개처럼 증발해 버리거나 자신의 구조를 강화하여 모임을 조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3) 지체 교회: 신약이 제시한 경험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다. 이 교회 구조는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경험으로 서로 연대감을 갖는 작은 그룹들의 그물(network)에 기초한 광범위한 조직이다. 이런 교회는 가정이나 학교 또는 홀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시설을 이용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정하는 형태의 교회이다. 이런 교회는 작은 세포의 끊임없는 분열과 확장을 통해 사회에 깊은 충격을 가하면서 무한적으로 성장하며 삶을 지속하여 나아간다.

(4) 장막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나 그 건물은 엄격하게 부차적이고 기능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건물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에 불과하다. 건물은 융통성 있게 지어졌고 다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 이런 교회는 환경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일시적인 장막이나 천막처럼 건물을 간주하기 때문이다.

상기의 교회 유형들 가운데 지체 교회(#3)가 가장 성경적이며 장막교회(#4)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합법적으로 구성하는 모임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스나이더는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Snyder 87):

“어느 교회든지 밖으로 성장하는 일보다는 건물에 더 많은 돈을 소비하고 모아진 것은 모두가 오로지 교회 안에만 있도록 붙잡고 있으며, 선교와 전도를 하기에 앞서 건축에 열을 올리며, 그 건물을 거룩한 기능 외에는 어떤 다른 일에도 사용하지 않고 사면의 벽에 갇혀 있는 사람 수로써 영적 깊이를 재는 그런 교회는 큰 건물 열등의식(edifice complex)에 잠혀 있고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하건 간에 거의 전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교회이다.”

## 베드로와 교회의 신학적 변혁

성경저자는 고넬료 기사(행 10-11장)에서 새 시대에 적절한 전도전략을 보여준다. 초대교인들은 주로 선민으로 자만심을 가진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의 신학적 고정개념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1)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2)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 3)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교회의 새 패러다임을 주심으로 새 시대에 맞는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 고넬료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였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고정개념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았다.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결례법에 따라 살지 않은 이방인은 부정한 자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기사의 표층은 고넬료의 회심을 말하지만 심층은 베드로가 체험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준다. 베드로의 신학적 변혁이 없이는 고넬료의 회심은 불가능하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 천사의 방문을 받은 고넬료(행 1~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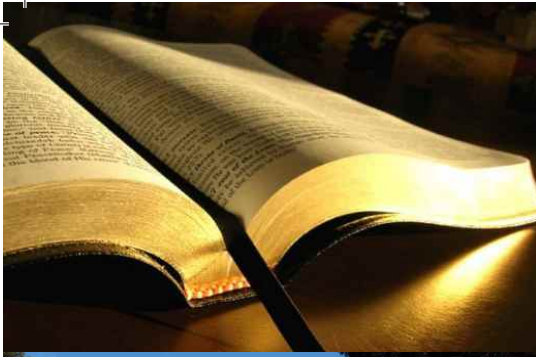
고넬료는 구제와 온 가족과 더불어 기도해 힘쓰는 자로 소개되었다(2절).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성전에서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없어 성전의 예배 시간에 온 가족과 더불어 집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방인인 그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하여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행 10:4, 31)고 말한다. 여기서 ‘기억하신 바’는 레위기가 말하는 소제의 ‘기념물’을 비유적으로 암시하는 제의적 용어이다. 고넬료의 구제와 집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사실은 이 행위가 성전 제사와 동등하게 여겨졌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세속 공간인 이방인의 집이 유대인의 성전의 거룩한 공간과 동등한 것으로 여겨졌다.

###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본 베드로(행 9~23절)

저자는 지역적으로 지중 해변의 헬라화 된 읍바에서 베드로의 행적을 말한다. 사체의 가족을 만지는 무두장이 시몬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부류에 속한다. 그의 집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엄청난 이상을 보았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보인 온갖 종류의 부정한 짐승들을 보았고(12절), 이어 “(이것들을) 잡아서 먹으라”(13절)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 “잡아먹다”란 용어는 제사장들이 행하는





제의적 행위를 함축적으로 의미한다. 베드로는 성전이 아닌 무두장이의 집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제의적 행위를 이루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의 음식규례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거절하였다(14절). 이 규례를 파기한 자는 하나님으로 이를 통해 베드로의 신학적 초점을 율법으로부터 그 율법을 주신 분에게로 옮겨주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15절).

성령은 그에게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였다. 베드로의 꺼림과 메시지에 대한 저항은 반복된 신적 간섭(17, 19~20절)을 통해 순종으로 바뀌었다(20절). 베드로의 순종은 두 가지 면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졌다. 하나는 신적 명령으로 성전 공간은 가정, 곧 집이란 공간으로 대체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찾아간 베드로(행 24-43절)

베드로는 신학적 변혁에 따라 행동하였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나”(28절), 신적 명령에 따라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 일은 당시 유대 크리스천들의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11:3; 15:5). 그러나 베드로의 변증을 들어보자. 그는 성령이 주도하는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자 곧장 신학적 혁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한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34~35절).

#### 고넬료의 모든 집안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베드로(행 44-48절)

설교 중에 성령이 집안의 모든 가족에게 부어졌다(44절). 어느 누구도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예견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워하였고(45절)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들었다(46절). 이는 하나님이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어 새 신자가 되면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방인들을 자신의 백성에 포함시키는 환경을 보고 자신의 신학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꿈과 동시에 이방인인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줄을 금하리요”(47절).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똑같이 생각하고 아브라함과 세운 약속의 축복에도 그들이 차별이 없다는 신학적 진리는 당시 유대인으로서의 참으로 믿기 어려운 신학적 혁신이었다.

이 기사는 베드로가 체험한 신학적 변혁을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예루살렘 성전에만 임재하신 것으로 여겨졌던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집, 그것도 이방인의 집에 오셔서 복음의 문을 여셨다. 2) 초대교회에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된 공간은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가정집이었다. 3) 복음은 어떤 특정한 민족과 장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을 통해 확장되어진다.

## 새 시대, 새 교회

### 가정집에 모인 초대교회

초대교회 시대에 회당이나 이방 신전은 모임의 장소가 될 수 없었다. 가정집은 초대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친밀하고 안정된 장소였다. 1세기 동안 가정집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삶을 형성하여 경제적인 하부구조로 선교사업의 근거가 되었다. 2세기 후반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으로 헌납하여 독자적 건물로 사용하였다. 구도가 변화되어 식당을 더 큰 회집의 홀로 바꾸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314년 밀란 칙령이 발표된 일 년 뒤 쾨성당(basilica)이 나타난다. 헌납되어 독자적 건물로 사용된 교회나 성당(basilica)에서 모인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가정교회에서 모인 것과는 다르다. 지도력은 몇 사람의 손에 들어가고 거룩한 지도자 계급이 생겨난다. 교회 사역은 전형적인 제의가 되어 공동체보다는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갔다. 서서히 가정교회는 건물 교회로 변해 갔다.

작금에도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건물'로 생각하여 교회생활을 잘하는 것은 좋은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들은 어떻게든지 교회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여겨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생활은 교회의 각종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교회의 한 부분만을 강조한 셈이다.

### 조직체가 아닌 조직(지체)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마 16:17)의 모임으로 성전이나 회당이 아닌 가정의 모임을 통해 머리되신 예수님의 지체이다(엡 1:23). 그 지체는 조직체(organization)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 연합되어 서로 성장하는 지체, 곧 조직(organism)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지체로서의 교제'이다. 이제까지 초미의 관심은 조직이 아닌 조직체로서의 교회였다. 현재 우리는 그 한계를 맞보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베드로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체험한 것처럼 교회를 건물(성전)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교회는 더 이상 건물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의 공동체가 결코 어떤 건물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교회 건물이 기능적이며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말하려 한다.

이제 교회는 조직체가 아닌 조직(지체)으로서 연구되고 구현되어져야 한다.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재하는 임재로 인하여 활력을 얻어 살아 움직이는 백성들'이다. 신약에서 교회는 조직체나 제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교제,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교회건물을 짓는데 온 힘을 쏟게 하거나 교회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영적 생명을 나누는 지체로서 서로 돌보고 도와주는 역동적인 교제의 장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이런 사역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곳이 작은 '변형교회'(Meta-church)로서의 가정교회이다.

### 새로운 전략

급변하는 현장 속에서 복음사역과 교회개혁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에 병행되어 교회 형태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교회를 건물개념으로 국한시켰을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현재의 구조 내에서 교회는 개혁되기에는 너무 버거운 모습이 되어 버렸다. 목회자가 개혁하면서 '건물=교회' 공식에 매였을 때 너무 큰 비용 때문에 쉽게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라도 성경이 말하는 원리적 개념과 이 개념을 심어야 할 토양으로서의 한국 현장을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교회를 하나님이 백성 중에 거하시는 처소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의 모임으로 보면, 혼란된 사역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변형된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교회를 쉽게 개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노방전도, 문서전도, 전국적 규모의 대형집회 등의 방법이 어려워진 대신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전도가 새롭게 부각되는 이 시점에서 '가정교회'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개념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회법상의 정치적, 행정적 처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